

## 특특뉴스

### 첫 아이 출산까지 평균 1년5개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는 결혼 후 평균 1년5개월 뒤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까지 있는 경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은 평균 2년가량이었다.

첫 아이 출산까지의 기간은 점점 길어지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다.

11일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 52만 321쌍의 첫째 자녀 출산 소요기간은 평균 16.7개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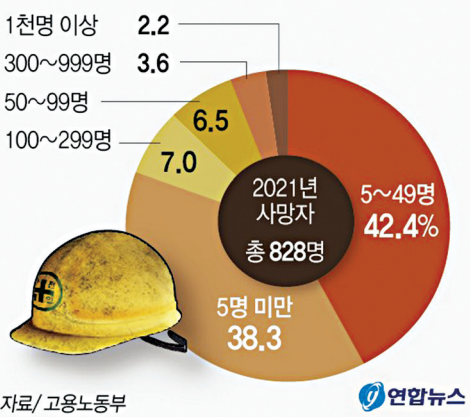
첫 아이 출산 평균 소요기간은 2015년 15개월, 2016년 15.2개월, 2017년 15.5개월, 2018년 15.7개월, 2019년 16.1개월, 2020년 16.7개월로 점점 길어지고 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가 첫 아이를 낳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17.2개월로 외벌이 부부의 16.3개월보다 길었다.

## 그래픽 경제

### 산재 사망자 사업장 규모별 비중



### 작년 산재 사망자 828명 역대 최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 “스마트 농업 확대 등 과제 해결에 최선”

## 2022년 지역경제인에 듣는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농업인 소득 증대 지원  
청년 미래 성장동력 육성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교육  
발농업 특화 농기계 개발

“농업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확보, 스마트 농업 확대 등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회복의 기미가 보였던 민간소비가 오히려 반이바이로 인해 다시 움츠러들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짚었다.

박 본부장은 이같은 난제 속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우선 “농업인 소득증대와 실익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 미래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를 통해 농촌지역 활력을 촉진하고 동시에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의존하는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청년농업인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인구 확대를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다음으로 “농업현장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농업 플랫폼을 보급하겠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표준화된 스마트팜 시설



을 개발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해 농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을 실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스마트 기축시장 플랫폼을 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축 경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영농 편의증진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상당부분 기계화가 이뤄진 논농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고정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업에 대해서는 밭농업에 특화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만

“전남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전남 대표 쌀 신종 품종 육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면서 “전남농업기술원과 협력을 통해 ‘강대찬’ 신종 품종 쌀을 육성, 올해는 종자생산은 목표로, 2024년에는 계약재배 규모 3만ha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새창무’는 8만5,000ha, 42만 톤까지 생산량을 증대해 단일품종 비율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여 만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한 박 본부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제도임을 염두에 두 달라”고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로 특산물들의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전남농협도 제도 시행에 발맞춰 많은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남의 농업·농촌이 생기를 되찾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성진 기자

## 광주은행 백운동지점 남구청사로 이전

구금고 업무 강화·고객 접근성 향상 기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백운동지점을 광주시 남구청사 1층으로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광주시 남구청 제1금고로 선정됐으며, 구금고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일반 고객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백운동지점의 영업 첫 개시에 직접 지점을 방문했다. 송 행장은 직원들과 함께 지자체 공공고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지역 살림 곳곳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금고지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민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또 백운동지점을 방문한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을 남구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 공공고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신뢰하며 지역살림을 맡겨주신 광주 남구를 비롯한 지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보내주시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시의 금융지원과 진정성 있는 금



광주은행은 11일 백운동지점을 광주시 남구청사 1층으로 이전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융상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은행에서 맡아온 광주 남구

청 금고를 탈환함으로써 올해부터 4년간 제1금고로서 일반회계를 담당하게 됐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